

주님의 평강이 동역자님의 교회와 가정에 충만히 임하시길 기도 드리며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한국은 하얀 눈이 내리는 추운 겨울이겠지만, 이곳 나트랑은 여전히 뜨거운 태양 아래 성탄 시즌과 새해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눈부신 해변과 관광객들로 북적이는 걸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그 화려함 이면에는 여전히 복음의 빛을 기다리는 갈급한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성탄절이나 새해를 맞이한다는 것은 그저 화려한 장식과 휴양의 날이겠지만, 저희는 이 시기를 나트랑의 잃어버린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영적 추수의 때'로 선포하고 사역에 임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8)

♣ 현장 소식 ♣

최근 나트랑 사역지는 현지교회 전도 초청 잔치, 반주자학교, 구제 사역 등을 통해 현지인들과 접점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경계하며 의심하던 이들이 조금씩 마음을 열고 우리를 환대해 줄 때마다, 성령님께서 이 땅의 완고한 마음을 만지고 계심을 느낍니다.

● 폭우로 잠긴 베트남



최근 50년 만의 갑작스러운 폭우와 수해로 인해 많은 이웃들이 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삶의 터전이 물에 잠기고, 당장 마실 물과 끼니를 걱정해야 하는 이들의 눈물이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 사랑의 도시락 (가장 낮은 곳에 임하는 하늘 양식의 기쁨)

“내가 주릴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마태복음 25:35, 40)



이번 수해로 인해 작은 나눔 이나마 예수님의 사랑을 흘려보낼 장소를 물색하며 기도하는 중 이곳 나트랑 외곽에 위치한 "잉칸 정신병원"으로 마음을 주셨습니다.

이 병원은 딸 은비가 우울증으로 아픔이 있어 두번씩이나 입원을 했던 병원 입니다. 사실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그 근처에도 가고싶지 않은게 솔직한 심정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그곳을 돌아보라는 마음을 주십니다.

사회로부터 소외되고 가족들에게조차 잊혀진 영혼들이 모여 있는 열악한 환경속에 참담하고 소망없는 그곳에...

베트남에서 정신질환자는 가족에게조차 외면당하고 방치되는 경우가 많으며 보호자나 돈이 없는 이들은 그안에서도 구걸로 연명해야하는 참혹한 장소입니다.

작은 나눔을 전달하기 위해 찾아간 병원에서 초점 없는 눈동자로 저희를 경계하던 환자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정말 이곳이 영적 전쟁터이고 정말 이곳이 예수님의 사랑이 꼭 필요한 곳이라는 마음을 주십니다.

주님이 주시는 긍휼의 마음으로 그분들을 섬기기로 합니다.

섬김의 마중물로 성탄의 기쁨을 나누고자 도시락 200개와 송구영신의 소망을 나누고자 간식 170개를 나눕니다.

심령의 아픔이 있는 환자들에게 우리가 전하는 밥 한 그릇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당신은 여전히 소중한 존재'라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앞으로도 일주일에 한 번,(매주 수요일) 특식이나 간식으로 그들의 육체적 회복과 정서적 안정을 도우며 사회로부터 소외되고 가족들에게조차 잊혀진 영혼들이 모여 있는 이곳에서, 주님의 사랑으로 따뜻한 한 끼를 나누고자 합니다.

1. 밥 한 그릇에 담긴 복음의 씨앗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이들은 베트남 사회에서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가장 소외된 계층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정성껏 준비한 음식을 나누고, 그들의 손을 잡아주며 육의 배고픔을 채우는 이 밥 한 그릇이, 훗날 그들의 메마른 영혼을 적시는 생명의 양식으로 이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2. 현장의 은혜

지난 섬김 때에는 한 환자가 한국어로 "감사합니다"라고 환하게 웃으며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우리는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로 답합니다)

이곳 병원 관계자도 사역에 마음을 열어 외부에서 환자들 대상으로 외부 식사가 반입된것은 처음있는 사례라고 하면서 나눔에 협조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은비의 보호자 인것을 알고있고 담당 의사,간호사들과 인연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주님은 이 작은 나눔을 통해 당신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계시며 음식을 준비하는 동역자들의 손길 위에도 나눔의 기쁨과 은혜가 가득합니다.

● 예수님의 손길이 되어 주십시오



(현재158명의 환자들에게 사랑의 도시락 170개를 섬기고 있습니다)

한달 만원의 행복: 한명의 환자를 섬길수 있습니다 (1회 2,500원 × 4회 =10,000원)

여러분들이 나누는 한 끼가 누군가에게는 살아갈 이유가 되며 따뜻한 밥 한그릇에 예수님의 사랑의 온기를 담습니다."

(사랑의 도시락 동역 후원계좌 : 국민은행 046 801 0409 3391 / 최연실)

● 제3기 반주자학교

베트남에 울려 퍼지는 새 노래, 예배의 회복을 꿈꾸며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사야 43:21)



이곳 현지 교회들은 예배를 향한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있지만, 안타깝게도 예배를 돕는 음악적 자원과 반주자가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에 현지 교회의 예배가 더욱 풍성해지고,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끊이지 않도록 돕는 ‘반주자 학교’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고 금번 제3기 (12주 과정 13명) 수료식 까지 주님의 은혜 가운데 마치게 되었습니다

1. 소중한 발걸음

반주자 학교에는 피아노를 전혀 배워본 적 없는 청년들부터, 독학으로 간신히 예배를 섬기고 있는 현지인 사역자들까지 모여 있습니다.

단순히 연주 기술을 가르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예배자로서의 마음가짐’과 ‘찬양의 영성’을 먼저 나누고 있습니다. (반주자 한 명이 바로 설 때, 그 교회 전체의 예배가 살아남을 믿기 때문입니다)

2. 기적의 선율들

처음 시작할 때에는 13명중 악보를 읽을수 있는 학생은 단, 2명 뿐 이었습니다.

피아노 반주를 배우는 것이 생소하고 서툴지만, 자신의 손끝을 통해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는 그들의 눈빛에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간절함이 담겨 있습니다.

수료식을 할 때에는 13명 전부 악보를 읽을수 있게 되었고 서툰 연주였지만, 그 선율 속에 담긴 진심 어린 고백은 온 성도들의 마음을 울리기에 충분했습니다.

이들이 각 지역의 교회에서 예배를 세우는 귀한 도구로 성장하고 있음을 봅니다.

이 거룩한 울림이 멈추지 않도록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 성탄절 전도축제



베트남 현지교회에서는 부활절, 성탄절에 어김없이 예수님을 믿지않는 불신자들을 초청하여 전도축제를 개최합니다.

이번에 함께한 성탄절 전도 축제는 반주자학교 학생 중에 완 성도님의 집 마당에서 열렸습니다.

완 성도님은 이 행사를 위해 1년간 기도로 준비하며 본인의 집으로 불신자들을 초청하여 함께 음식을 나누며 예수님을 전하는 천국잔치를 하십니다.

올해에는 예수님을 알지못하는 100명의 불신자들을 초대

청하여 그중 87명이 잔치에 참석 하였고 그중 25명이 예수님을 믿기로 결신하는 놀라운 시간 이었습니다

정성껏 준비한 음식과 선물을 나누며 복음의 메시지는 아주 쉽고 명확하게 전달되어 많은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는 기쁘고 복된 시간 이었습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하며 저희도 선한 도전을 받는 귀한 만남의 시간 이었습니다.

●성탄절 선물 나눔



동역하는 공동체의 귀한섬김으로 닥락지역 5개 교회의 1,300명의 주일학교 어린이들에게 성탄선물이 전달 되었습니다.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오신 예수님의 사랑이 이 작은 선물을 통해 이 땅에 심긴 복음의 씨앗이 다음세대에 싹을 틔우길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 함께 마음 모아 주실 기도 제목입니다

1. 고난 속의 이웃과 치유 사역

- ※ 수해 피해자 위로: 집과 가족을 잃은 이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친히 만져주시고, 다시 일어설 소망과 용기를 부어 주소서
- ※ 잉칸 정신병원 구제: 물질적 지원을 넘어 하나님의 사랑이 흐르는 통로가 되게 하시고, 환자들의 육신과 정신이 주의 보혈로 깨끗함을 입게 하소서
- ※ 사역의 안전과 재정: 배식 과정의 위생과 안전을 지켜주시며, 병원 관계자(의사, 간호사)들이 이 섬김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하소서

2. 제4기 반주자 학교 (2026년 3월 개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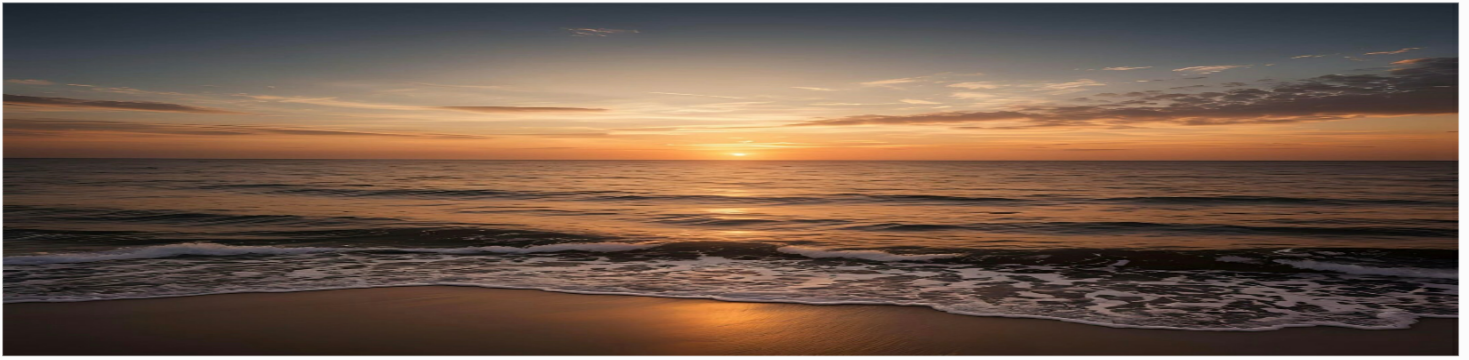
- ※ 참된 예배자 양성: 학생들이 기술적 성장을 넘어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예배의 마음을 먼저 갖게 하소서
- ※ 배움의 지혜: 기초가 부족한 학생들에게 포기하지 않는 끈기와 지혜를 주시고, 연습을 위한 악기(디지털 피아노 등)와 시설이 순조롭게 채워지게 하소서
- ※ 영적 부흥의 불씨: 이곳에서 훈련된 반주자들이 각 교회로 돌아가 예배의 불씨를 지피는 영적 지도자가 되게 하소서

3. 베트남 중부 닥락성 목회자 리트릿 (1/12 ~ 1/14)

- ※ 쉼과 재충전: 냐짱으로 초대받은 5개 교회 목회자 부부들이 2박 3일 동안 영육 간에 깊은 휴식을 얻고, 2026년 한 해를 달려갈 은혜를 공급받게 하소서
- ※ 필요의 채움: 리트릿 진행에 필요한 모든 재정이 부족함 없이 채워지게 하소서

4. 선교사 가정과 영적 강건함

- ※ 자녀를 위한 기도: 은비에게 온전한 치유와 회복을 주시고, 은우가 정체성의 혼란 없이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성장하게 하소서
- ※ 영적 공급: 내 힘이 아닌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며, 날마다 말씀 안에서 새 힘을 얻게 하소서
- ※ 안전과 지혜: 덥고 습한 환경과 풍토병으로부터 지켜주시고, 현지 언어 습득과 문화 이해를 통해 현지인들과 깊은 영적 소통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로마서 8:28)

우리는 비록 몸은 떨어져 있지만, 우리는 '복음'이라는 띠로 연결된 하나님의 동역자임을 믿습니다. 동역하시는 모든 걸음 위에 주님의 평강이 항상 가득하시며 2026년 한해도 항상 건강하시고 주안에서 계획하시는 모든일들이 주님 뜻대로 형통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이곳 베트남에서 복음의 승전보를 전할 수 있도록 복음의 기쁜소식을 함께 나눌수 있도록 그일을 이루실 우리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주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2025년 12월의 마지막 날에

🇻🇳 나트랑의 푸른 바다보다 깊은 주님의 사랑을 전하며
이동주, 최연실 선교사 올림